

# 강진군 “코끼리마늘꽃 배경으로 인생사진 찰칵”

### 작천면 부흥마을, 보랏빛 일렁이는 물결 장관 관광객 유치 위해 2ha까지 꽃단지 확대 방침

강진군 작천면에 활짝 핀 코끼리마늘꽃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작천면 부흥마을의 한 농가가 0.3ha(약 900평) 규모 부지에 식재한 보랏색 코끼리마늘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코끼리마늘꽃 군락지마다 사잇길이 놓여있고 하트 조형물 등도 조성돼 있어 더 아름다운 사진과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끼리마늘은 토종 마늘로, 일반 마늘과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크기다. 일반 마늘은 5-6g 정도인 한 쪽이 대 여섯개 모여 한 통을 이루는데, 코끼리마늘은 한 쪽이 50g 정도로 무게가 거의 열 배에 달한다. 코끼리마늘이 일명 ‘대왕 마늘’로 불리는 이유다. 코끼리마늘은 지름 10cm 가량의 동그랗고

진한 보랏빛 꽃을 피우며 예로부터 흑마늘용으로 재배해다, 최근에는 관상용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부흥마을이 지역의 숨겨진 사진 명소 중 하나로 유명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이 코끼리마늘꽃 단지를 최대 2ha까지 점차 확대 조성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유휴지에 식재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강진군은 코끼리마늘꽃 개화 시기가 작약, 수국 등과 비슷한 것에 착안, 내년 ‘강진 수국길 가는길 축제’ 시즌에 맞춰 만개할 수 있도록 농가와 협의 후 올해 9월 말 즈음 식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며, 특히 판로 확대를 위해 코끼리마늘을 이용한 백숙 등 지



역 특화 음식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진군청 관계자는 “현재 보랏빛 일렁이는 물결을 감상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년 중 이 기간에 만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겨

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흥마을 코끼리마늘꽃은 이달 말까지 만개기 이어질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 완도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내 최다 인원 배정’ 법무부로부터 663명 배정받아

완도군은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663명을 배정받았다.

이로써 완도군은 올해 상반기 인원을 합산하여 전남도 내 총 배정 인원인 7,611명 중 가장 많은 인원인 1,672명을 배정받아 인력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완도군에는 5월 말까지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다시마 생산 어가를 비롯한 농·어가에 900여 명이 배치되어 근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용주의 수요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본격적인 수산양식 시설물 설치 시기에 맞춰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여 농·어업이 원활한 인력 수급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고충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공약사항 순조롭게 추진...공약이행률 30%

진도군이 지난 16일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공약 사업 추진 사항 보고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희수 진도군수 주재로 공약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문제점 분석,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를 통해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핵심 기조로 ▲다함께 잘사는 산업 혁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 혁신 ▲인재를 키우는 교육 혁신 ▲찾아서 머무는 관광 혁신 ▲군민을 섬기는 행정 혁신 등 5대 목표 아래 100개 공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수산물가 예상 30% 편성 ▲전지역 학생 100원 버스 실행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 등 총 30건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완료 후에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아리랑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등 총 70건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공약 이행률이 30%로 나타나 민선 8기 김희수 진도군수 공약사항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행정 절차 이행, 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 정부와 전라남도,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공약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강조했다.

진도=조성용기자

## 해남군, 멋과 맛 담아 확 바뀐 전통시장

### 해남읍 매일시장 재개장 인파 북적, 해남군 면단위 시장 현대화도 박차

해남군 전통시장이 멋과 맛을 담은 새로운 명소가 거듭나고 있다.

지난 2월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신속 개장한 해남읍 매일시장은 5월부터 야시장 행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과 6월 9일 열린 야시장은 현대화된 시장 환경을 활용해 방문객들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상가마다 맛있고 저렴한 먹거리를 선보이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야간 즐길거리에 가족단위 방문객은 물론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 직장인들의 회식까지 이어지며 매일시장 개장이래 가장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야시장 행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 23일, 7월 7일, 7월 21일에도 열릴 예정이다.

매일시장 야시장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군과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업속에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소상공인들의 소득처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낡은 이미지의 전통시장을 깨끗하고 특색있는 시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인터넷 쇼핑 중심으로 소비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매일시장 재개장 행사를 계기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관련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바다씨푸드와 7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 김성 군수 “지역 수산물 판로확대 및 어민 소득증대 기대”

장흥군은 16일 전남도청에서 바다씨푸드 주식회사와 7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성 장흥군수, 백종희 바다씨푸드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바다씨푸드는 장흥군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일원에 7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바다씨푸드 주식회사는 새꼬막, 피꼬막 등 조개류를 이용하여 자숙꼬막살을 가공 및 저장처리 하는 기업이다

협약 후 공장 착공을 시작하여 이르면 2024

년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건축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도 마친 상태이다.

장흥군은 이번 투자 유치로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분양률 65%를 달성하게 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기업유치 성과가 장흥군 지역 어민들의 소득증가와 지역 수산물 판로 확대에 이여지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과 협력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